

■ 민주 '전대룰' 확정... 당권주자들 득실은

정동영·박주선 '수혜' 정세균 '선방' 손학규 '빈손'

후보자간 합종연횡 당권구도 오리무중 '빅3' 제외 4~6위 그룹 향배도 관심사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 룰'이 지난 6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 5일 자정 무렵, 투표까지 실시돼 마련된 전당대회 룰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 후보자 간의 합종연횡과 물 밑 경쟁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표결까지 간 전당대회 룰=6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선 1년 전, 당권과 대권 분리 ▲대의원 투표(1인 2표) 70% + 당원 여론조사 30% 등의 안건을 최종 인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5일 자정 무렵,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전당대회 룰'을 마련했는데 지도부에는 3표(14대 11), 당권과 대권 분리, 경선 방법은 각기 1표라는 긴박의 차이로 결정됐다.

▷명암 엇갈린 당권주자들=전대룰이 결정되면서 당권주자들의 명암도 엇갈렸다.

우선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대의원 1인 2표제, 당권과 대권 분리, 당원 여론조사 실시 등으로 정동영, 박주선 의원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다. 구 당권파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막고 당원 여론조사 도입으로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반면, 손학규 고문은 정동영 의원측과 공동전선을 폐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권과 대권 분리로 총선 공천권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당원 여론조사도 반영도 30%에 그쳤다.

손 고문 측에서 요구했던 국민 참여는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그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관찰하지 못했지만 당원 여론조사에 30%선에서 저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으로 '빅3' 등 거물급 인사들의 무더기 지도부 진출이 전망되면서 당내 486 그룹을 비롯,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했던 중소후보들의 지도부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오리무중 당권 향배=전당대회 룰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누구도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의 대세론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으며 합종연횡에

따라 당권 구도도 상당한 영향이 불거져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그 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권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빅3'를 제외한 4위부터 6위 그룹의 향배도 관심사다.

일단 박주선 의원은 구 민주계의 확고한 지지와 1인 2표제 도입의 영

향 등으로 안권이며 오히려 3위 이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나머지 두 장의 티켓을 놓고 김효석, 천정배, 백원우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1인 2표제와 당원 여론조사 등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창당 정신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박주선 당권 출마 선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6일 '제2의 창당'을 모토로 10·3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창당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대안과 실천”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벌도, 계파도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혈혈단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뿌리가 있고 원근과 소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인물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창출과 관련, “2012년 총선 전에 민주개혁 세력을 하나로 통합, 단일 정당을 만들

겠다”며 “2단계로 반(反)한나라당 세력과의 정책 연합 등을 근간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예비내각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선 ▲고교의무교육 추진 ▲국립박물관 15%로 확대 ▲취약지역인 영남권 특별대책 수립 등을 내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성장 온기 안퍼져 마음 무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성장의 온기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아직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일과 채소를 거래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새벽시장을 갔을 때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오이와 호박, 마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저도 확인했다”고 추측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이 온기가 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새벽시장에서 만난 분들이 ‘정사가 잘 돼요, 이제 살 만해요’라며,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2009 회계년도 결산 심사

국회 능력심사 30일 완료

국회의 능력으로 애초 16일까지 끝내려했던 2009 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이달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여야간사간 협의를 통해 13일부터 결산심사에 들어가 이달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예결위는 13~14일 종합정책질의, 15~16일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사를 끝내고, 추석연휴를 마친 뒤 27~29일 결산소위를 가동해 2009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한 뒤 30일 결산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초 합의했던 예결위 결산심사 기간(7~

16일)보다 일주일 가량 지연된 것이다.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이 순연된 것은 상임위 차원의 결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이전(9월1일)에 결산심사를 끝내야 했지만 8·8 개각 인사청문회, 8월 국회의원 의원 일정 등이 겹치면서 결산심사가 지연돼 각 상임위는 이달 들어야 일정을 잡고 결산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올해도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래 7년 연속으로 법을 어기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컷오프' 도입

후보군 9명 압축... 중앙위원 '1인 3표제'

민주당이 10월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 선출인원(6명)의 1.5배수인 9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컷오프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13명 출마자 모두가 본선에서 일할 것을 겨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컷오프는 당 중앙위원 약 480명 가운데 정세균 대표 시절 임명된 100여명을 제외한 370여명을 상대로 '1인3표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선에서는

'1인2표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정세균 전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 빅 3와 김효석·박주선·유선호·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최재성·백원우·양승조·조경태 의원, 장성민·이인영·정봉주 전 의원 등은 본선에 앞서 1차 예선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빅 3외에 김효석·박주선·유선호·천정배·양승조 의원과 장성민·이인영 전 의원 등이 등 빅 3와 김효석·박주선·유선호·천정배 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두 번의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후보 간 합종연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 예비경선에서 느슨한 연대가 시도된 후 본선 진출 후보들이 결정되면 이들 간 합종연횡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대 출마자별 대립전선의 한쪽에는 정 전 대표와 친노·486인 백원우·최재성 의원, 이인영 전 의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유선호 의원

등이, 다른 쪽에는 손 전 대표와 정 고문, 비주류 연합체인 해신연대 소속의 박주선·천정배·조배숙 의원, 비주류 성향의 김효석·양승조·조경태 의원, 장성민·정봉주 전 의원 등이 각각 위치하게 됐으며 ‘짜집기’도 이를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손 전 대표는 박주선·양승조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과의 연대가 유력해 보이며 정 고문은 천정배·조배숙 의원 등과의 연대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선을 거치면 합종연횡 구도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땀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C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게·목결림, 수직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